

황금연휴 끝... 제주경제 다시 냉기류

**연휴기간 20만명 가까이 찾으며 모처럼 활기
 썰물 빠지듯 돌아가면서 또 침체기 돌입 우려
 80% 넘던 렌터카 이용률 20%대로 추락 예상**

황금연휴 기간 반짝 특수로 인해 모처럼 활기를 띤 제주 경제가 또다시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황금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총 19만3000여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다. 당초 제주도가 예상한 17만9060여명에 비해 7.8%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연휴 기간 초반 제주행 항공편 예약률은 90%를 넘었으며, 20%대까지 떨어졌던 도내 렌터카 이용률도 80%대를 회복했다. 또 도내 숙박시설 투숙률 역시 70% 이상을 기록하며 반짝 특수를 누렸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찾아온 황금연휴로 인해 제주 관광시장이 차츰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관광업계에 감돌았다. 그러나 이번 연휴가 끝나면서 제주 관광시장은 다시 침체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하루 최대 430여편의 항공이 제주를 오갔

으나, 6일부터는 360여편으로 감편될 계획이다. 한때 10만원대까지 치솟았던 제주행 항공권 가격도 연휴가 끝나자 1만원대로 다시 떨어졌다.

80%대의 가동률을 보이던 렌터카 업계도 관광객이 빠져나가자 다시 20%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로 인

해 렌터카 이용 요금을 90% 넘게 할인하고 있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도내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입도객이 3만명을 넘긴 연휴 초반에는 렌터카 이용률이 높았지만, 입도객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용률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황금연휴 효과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제주 관광 시장이 앞으로 조금씩 회복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연

휴 기간 관광객이 몰리며 객실 예약률이 전월 대비 70% 정도 증가했으며, 연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코로나19 시기보다는 50% 정도 증가한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청정한 지역인 제주도와 강원도 등으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도 다소 진정되고 있는 추세여서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현석기자



구름모자 쓴 산방산 5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가에서 바라본 구름모자를 쓴 모습의 산방산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김현석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오는 19일까지 연장 도, '등교 수업'에 전국 첫 등교생 사전검사도 추진

정부가 6일부터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위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가운데 제주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4일 집무실에서 관계부서와 긴급회의를 열고 "입도객이 늘고 있는 만큼 전국 상황과 관계없이 현행 방역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잠복기를 고려해 14일 이후인 19일쯤 생활방역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19일쯤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여부 등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등교생 대상 선제적 코로나19

사전 검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원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등교수업 재개 후 집단 감염이 폭증한 싱가포르 사태를 언급하고 "다가올 등교 개학이 가장 걱정이다. 교내 확진자 1명이 나오면 학교가 폐쇄될 수 있다"면서 "선제적인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 전체는 물론 지역사회가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를 위해 등교생 대상 선제적 코로나19 사전검사를 적극 추진 방침으로 제주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교내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수립도 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간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4·3트라우마센터 오늘 문연다

**치유 대상자 1만8000여명
 조사·연구사업 등도 추진**

제주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숙원인 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6일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제주시 중앙로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옛 세무서)에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4·3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관심 저조와 전문적인 치유기관 부재 등으로 고통의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한 치유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센터는 4·3평화재단이 운영을 맡고 센터장과 정신건강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제주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치유를 위해 개인·집단상담,

심리교육, 예술활동 치유, 물리치료, 한방치료, 신체재활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또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와 국가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및 국제사회와의 교류도 추진된다.

현재 파악되는 치유 대상자는 1만8000여명으로 후유장애인 84명, 수형인 33명, 1세대 유족 1만3297명, 1세대 며느리 2881명, 그 외 국가사업에 의한 피해자 2000여명 등이다. 센터 개소에 따라 다양한 치유·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지역회합과 공동체 회복 등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도내 29만5000여 가구 대상... 제주형과 중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29만5000여 가구로, 이 중 11.4%에 해당하는 도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3만3000여 가구에겐 4월 우선 현금이 지급됐다.

지원금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중 15% 가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제주는 총 예산 1841억 중 266억을 지방비로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지급된 지원금과 중복여부에 따라

금액을 감액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기존 지급 여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신청절차 등 수혜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지난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운영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세대주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

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며,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업종과 사용 지역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할 수 있으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MG 새마을금고보험

코로나19 극복, MG새마을금고가 함께합니다

나에게 득+ 되는 보험

보장은 더 든든하게, 보험료 부담은 낮게
 당신 편에서 보험을 생각합니다